

퀘이사 월간지_2020년_06월호
신기술_실리콘 음극재_대주전자재료

작성자: 땡기왕자

***6월호는 12PAGE부터 기재되어있습니다.**

♣♣♣2020년05월호

=><2차전지 섹터>가 작년 여름 대비 1년 동안 대장주 대부분은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3월 코로나처럼 특별한 기회에 투자한 경우에는 바로 2개월 안에 100%이상 주가가 올랐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2차전지 섹터>도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전에 달렸던 선수들도 당연히 후반전에 투입됩니다. 일부만 신선하고 새로운 모멘텀(전고체/실리콘 음극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선수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1등 기업인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대보마그네틱도 당연히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겠지만 주가상승여력과 신선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대주전자재료>로 선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LG화학을 중심으로 연말에 상용화가 됩니다.

=>2차전지 안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결국 아직은 긴가민가한 새로운 미래 트렌드를 미리 선점해야만 대박이 나옵니다.

=><2차전지 섹터>안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2의 에코프로비엠은 후반전에서 <대주전자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르면 안 됩니다. 대장주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월간지를 작성할 때도 최대한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전고체가 양극, 음극이 있는데 이게 금속입니다. 이 사이에 전해질

을 채워 넣는데 보통 전해액이었는데, 전고체라는 것은 전해액을 고체로 쓴다는 것입니다. 강점은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씨아이에스가 신세대 2차전지 차세대 소재인 전해액 전고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가장 핵심인 양극재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섹터 대장주입니다.

♣차세대(후반전) 2차전지 전쟁

=>개인적으로 2017년쯤 처음 관심을 가졌었던 기업이었는데, 결국 투자를 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당시에도 가치투자 방식으로는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용 신규 실리콘계 음극재는 전기차용 파우치셀의 음극재로는 세계최초로 적용되어 2019년부터 양산공급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전동공구용 원통형셀의 음극재로도 양산공급되고 있습니다. 실리콘계 음극재는 기존의 탄소계 음극재에 비하여 에너지밀도를 향상시키고 급속 충전에도 유리하여 대부분의 배터리 업체에서 3세대 배터리의 음극재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실리콘계 음극재가 적용된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본사의 실리콘복합산화물 제품이 새로이 개화되는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보고서에, “우리가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편인데, 회사의 굉장한 확신과 자신감을 들어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시장의 추정 실적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종목일 겁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장의 개화를 통한 확장성>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원격의료 시장이 개화되면 지금보다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것인가?’, ‘실리콘계 음극재가 개화되면 지금보다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것인가?’

=>음극재는 특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해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사업 본격화

발행일 : 2018.04.18

기사만 보기



=>2018년도에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2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분기 부문별 매출을 보면, 매출 비중은 아직 낮지만 실제로 <실리콘 음극재>에서 26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실제 매출을 보면 점점 현실화(시장 개화)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과거에 오판을 했던 이유가, '매출 비중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래 신사업의 매출 비중이 낮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가치투자자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식투자가 어렵습니다.

=>LG화학이 이미 올해 연말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상용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LG화학을 통해 포르쉐에 납품하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해당 소재를 대주전자재료에서 공급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수록 <2차전지 섹터>는 수혜를 입게 되는데, 중국의 배터리가 중국 영토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삼성SDI, LG화학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통해 앞으로 새롭게 <실리콘 음극재> 소재를 공급하는 대주전자재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주가 상승 모멘텀과 지금의 모멘텀은 다릅니다.

월간지(퀘이사)

우주의 기운이 한반도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괴롭혔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한국산 배터리들은 중국 외에 유럽, 미국 등에 배터리 수출 길을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게 '신의 한수'가 될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들이 중국 영토 밖을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 배터리는 결국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경쟁력은 한국산 배터리가 일본 파나소닉 등보다 낫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중 전쟁, 홍콩 문제 등 미중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1 오후 7:05

=>LG화학, 파나소닉만이 현재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원래 일본 신에츠와 협력하여 개발을 시작했으나 효율이 80%에 미치지 못해 업체를 대주전자재료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배터리의 80%수준이고 양산성과 공정, 비용 등을 따져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삼화콘덴서가 2017년도 주가가 상승할 때를 보면 아직 전기차가 상용화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전기차 섹터에서도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서 주가가 오르는 기업도 있고, 훨씬 전에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1번 타자로 주가가 오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게 기업분석가들이 모르는 시세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치투자자들이 저평가 종목들만 수집하다가 미래의 메가트렌드를 놓치는 종목들이 수도룩 합니다.

=>2019년 6월에 처음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레포트를 발행할 때까지 하더라도, '이게 과연 현실이 될까?'란 생각이 많으셨을 겁니다. 모든게 상용화가 되고, 완벽할 때 투자하려고 하는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중앙일보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단 전기차, 한번에 450km까지 달린다

기사일력 2019.12.19. 오후 5:33 최종수정 2019.12.19. 오후 6:01 기사원문 스크랩  설정

실리콘 음극재 수요 급증...2025년까지 연평균 70% 성장

=><실리콘 음극재>의 시장 수요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70%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극재 수요량은 2019년 기준, 약19만톤에서 2025년 136만톤으로 연평균 39%성장할 것으로 전망)

=>2019년 기준, 음극재 시장에서 약3%를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비중은 2025년이 되면 약11%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밀도는 약4배 높지만, 시장에서 비중

이 낮은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실리콘이라는 소재는 부피팽창이 발생하면서 조직이 빠르게 파괴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2차전지의 빠른 충방전 수명 감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콘을 나노 단위로 쪼개 산화물 또는 합금, 탄소 등으로 감싸서 실리콘 팽창을 물리적으로 막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충분한 전기차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인데, <실리콘 음극재>의 전지 내 사용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첨가를 통한 에너지 용량 확대가 핵심입니다. (전해질은 전고체 전 단계인 유사고체 또는 젤 타입의 도입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는 2차전지 에너지 밀도>가격>수명 순으로 중요도가 컸다면, 앞으로는 가격>수명>에너지 밀도 순으로 중요도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차전지 배터리의 가격하락 없이는 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키는 신기술은 가격 하락도 동반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격 인하와 동시에 배터리 수명과 한 번 충전에 오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월간지(퀘이사)

'2차전지 섹터' 대장주는 월간지에서 언급한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에코프로비엠'이 맞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장비주의 흐름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T반도체를 비롯한 'NEW경기민감주'의 본격적인 랠리는 지금이 아니라 여름 이후로 보이고 올 연말이 되면 '2차전지 섹터' 1등기업들은 2월 전고점을 대부분 넘어갈 겁니다. 단기 부침은 있더라도 앞으로 2년을 더 보유하면 '에코프로비엠'은 15만원 넘어갑니다.

190 오후 7:45

월간지(퀘이사)

이재용-정의선이 만난 것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율주행'때문입니다.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189 오후 7:46

월간지(퀘이사)

단순히 배터리 때문에 만난게 아닙니다. 현대차가 배터리야 LG화학,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써도 그만입니다. 굳이 삼성SDI 배터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전기차 이후 자율주행 때문인데 삼성전자가 현대차에게 자율주행, 비메모리를 내어주고(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기술력), 현대차는 그걸 가지고 100년 엔진 시대에 이루지 못한 세계적인 미래 자동차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서로 윈윈 전략이지만 같은 이재용이고, 둘은 정의선으로 현대차가 삼성전자에게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190 오후 7:49

월간지(퀘이사)

전 세계에서 전기차 사업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과거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하지 못합니다. 현대차가 IT 자동차(미래자동차)로 유럽 자동차 회사를 넘어 세계 일류 자동차 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만들어야 됩니다.

186 오후 7:59

=>최고경영진들 간의 만남은 이례적으로 <차세대 2차전지>와 그 이후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겁니다.

=>특히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양사의 핵심 연구원 사장들이 만났다는 것은 <차세대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의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공개



=>테슬라의 기술 파트너인 Jeff R.Dahn교수의 논문을 보면, NCM과 개선된 음극재를 통해 100만마일 주행이 가능한 2차전지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개선된 음극재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최근 HRS(036640)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바로 '실리콘' 때문입니다.

Business Summary [2020/04/27]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 동사는 **실리콘고무제품** 제조를 영위할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현재 규소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특수 실리콘 소재의 개발 및 제조 판매 사업으로 각종 전자,전기,자동차,통신,의료 등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수 실리콘 소재를 용도,특성에 따라 제조 판매하고 있음. 동사가 판매하는 **실리콘 고무는 다가올 미래 4차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화학소재로 인식되고 있음.**

=>HRS은 실리콘고무제품을 제조하는데, 실리콘 고무는 4차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화학소재입니다. HRS이 방독면을 만들어서 주가가 오르는게 아닙니다.



=>2차전지 음극재에서 실리콘 고무의 수요가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LG화학은 GM과 함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울티엄에 납품을 확정하고, 합작사인 울티엄 셀즈를 설립했습니다.

=>향후 30GWh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고, 차세대 4성분계 양극재인 NCMA를 2020년도까지 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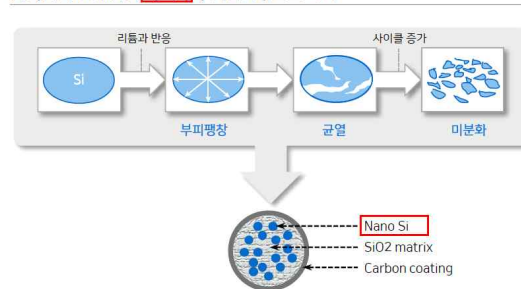
=>앞으로 양극재는 단결정과 4성분계 하이니켈 기술이 핵심이고, 92% 하이니켈을 달성해 에너지 밀도와 가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음극재 성능 향상에 <실리콘 도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극재와 실리콘계 음극재 에너지밀도 및 효율 비교

구분	인조흑연	천연흑연	비정질 탄소 (소프트/하드카본)	실리콘계 (Si/SiO)
사진 (형상)				
방전용량(mAh/g)	250-360	350-370	200-300	1,000-1,700
초기효율(%)	92-95	90-94	80-90	73-87
수명	장수명	보통	보통	단수명
가격(달러/kg)	8~15	5~10	8~12	50~150
주요 제조업체	Hitachi chemical JFE Mitsubishi chemical BTR Nippon carbon Showa denko Tokai carbon	BTR energy Shanshan Hitachi chemical Nippon carbon 포스코케미칼	Nippon carbon Hitachi chemical JFE chemical Kureha 애경유화	대우전자재료 BTR Shinetsu OTC Hitachi chemical Showa denko

참고: 경쟁사 80% 효율 내는 소재 개발중인 반면 대우전자재료는 80% 양산을 넘어 85% 개발중.

실리콘의 문제점을 나노화와 카본코팅으로 극복



자료: 산업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기존 전해액은 온도 변화에 취약했고, 전극 소재 선정과 표준 전압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체 전해질(전고체 전지)은 에너지 밀도와 내구성(안정성)이 높아, 전극 소재의 다양화가 기대됩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원재료인 황화리튬 가격이 KG당 수백만원을 호

가합니다.

=>반면 기존 리튬이온 2차전지의 경우 기존 제조 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정 개선으로 에너지 밀도 상승이 가능하며 NCMA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첨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전기차는 기존 리튬이온 2차전지의 성능 개선에 따른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면서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 음극재는 실리콘을 무기로 한 대주전자재료를 양어깨에 걸치고 있으면 든든하겠죠. 2종목 지금 주가가 모두 비싸보일텐데, 미래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의 주가는 한 번 갈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간실적

평균성장률	연간실적	2015	2016	2017	2018	2019(F)	2020(F)	2021(F)	2022(F)	18대비	19대비	20대비	21대비
25%	매출액	575	679	934	1,029	1,164	1,514	1,959	2,360	13.1%	30.1%	29.4%	20.5%
49%	영업이익	-23	40	30	37	27	108	191	241	-27.0%	300.0%	76.9%	26.2%
66%	당기순이익	-49	7	-79	5	-7	54	114	149	적자전환	흑자전환	111.1%	30.7%
20%	영업이익률	-4.0%	5.9%	3.2%	3.6%	2.3%	7.1%	9.7%	10.2%	-35.5%	207.5%	36.7%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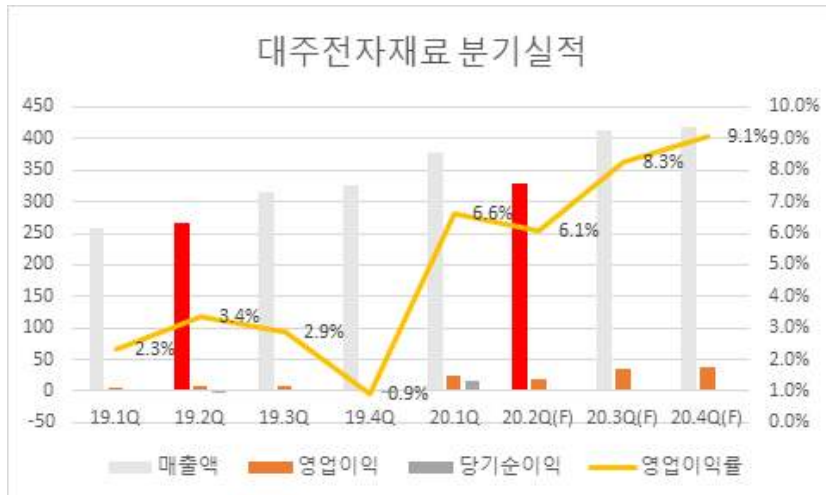


=>연간실적으로 보면 올해 추정 전년대비 매출액은 30.1%증가, 영업이익률은 300%증가,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 영업이익률은 207.5%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2022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매출액은 25%성장, 영업이익은 49%성장, 당기순이익은 66%성장, 영업이익률은 20%성장이 예상됩니다.

♣분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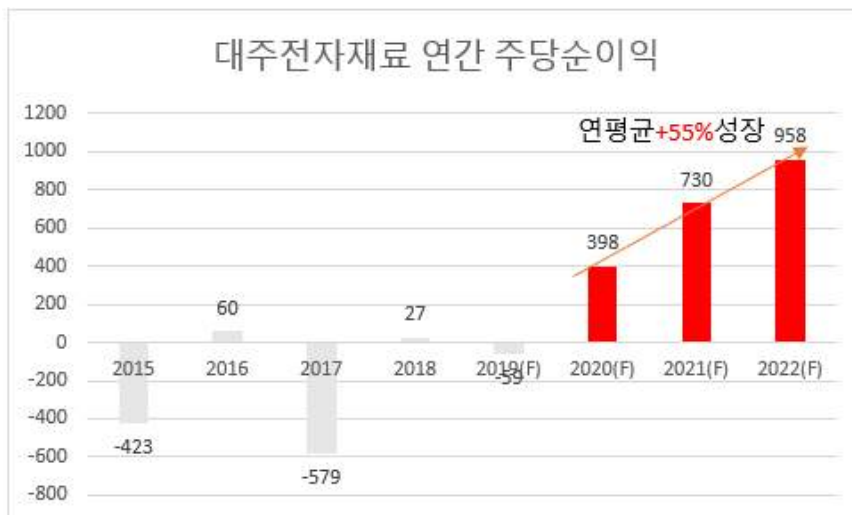
분기실적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F)	20.3Q(F)	20.4Q(F)	전년1Q대비	전년2Q대비	전년3Q대비	전년4Q대비
매출액	257	266	314	327	378	328	412	419	47.1%	23.3%	31.2%	28.1%
영업이익	6	9	9	3	25	20	34	38	316.7%	122.2%	277.8%	1166.7%
당기순이익	1	-4	0	-4	17				1600.0%			
영업이익률	2.3%	3.4%	2.9%	0.9%	6.6%	6.1%	8.3%	9.1%	183.3%	80.2%	187.9%	888.5%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47.1%증가, 영업이익은 316.7%증가, 당기순이익은 1,600%가 증가하였습니다. 엄청나죠?

=>올해는 분기마다 계속된 전년동기대비 실적 증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당순이익



=>2020년~2022년 연평균 예상 주당순이익 성장률은 55%입니다. 대단하죠?

=>기업으로 치면 이제 정말로 기업다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도 화답할 수밖에 없겠죠.

♣PER공식(목표주가: 60,000원)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전자재료에 가치투자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PER공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말이 안 되고 오르든 떨어지든 늘 버블처럼 보입니다.

=>PER공식 말고, 다른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목표주가를 산출하면 목표주가는 60,000원이 나옵니다.

♣기술적분석



=>아마 차트로 보면 주가가 높아보일 겁니다. '저새끼가 날 죽이려고 고점에서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건가?'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2017년11월 차트입니다. 과거에 저 자리에서라도 매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저 자리가 바로 지금 동그라미를 친 위치입니다. 단순히 차트 그림만 보고, 주가가 비싸다, 싸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주가가 단기 급등에 따른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으나, 횡보하지 않고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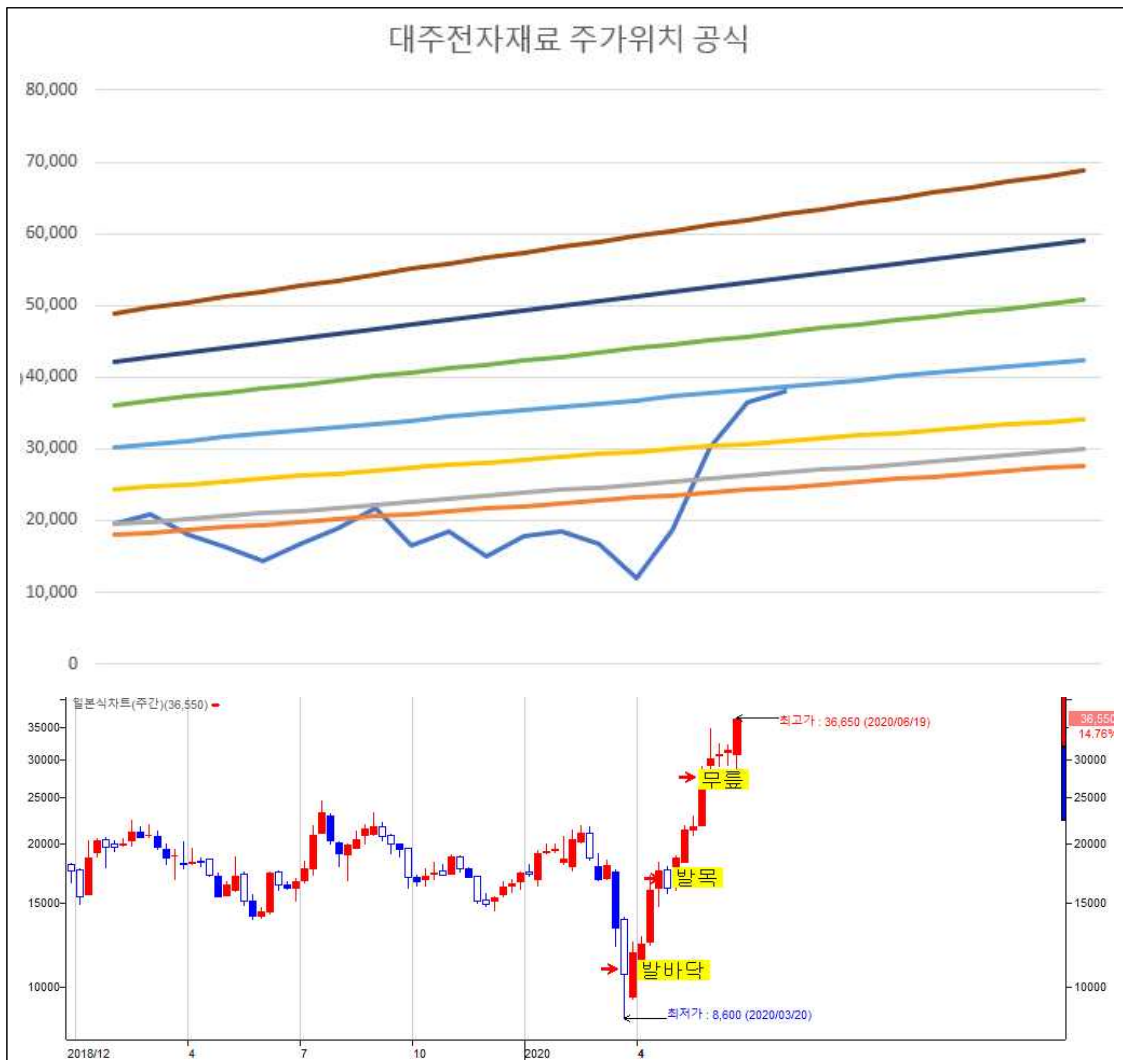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가 절대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2020년06월호

=>5월호에서, '저새끼가 날 죽이려고, 고점에서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 건가?'란 생각이 들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무릎입니다.

♣기술적분석



=>대주전자재료 주가가 차트만 보면 고점처럼 보이더라도 로직(주가 위치 공식)을 활용하면 주가가 여전히 허리 살짝 이하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차트만 보면 주가가 높아보이는데, 로직(주가위치 공식)으로 보면 노란색줄이 무릎인데, 저번 달에 이미 무릎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허리 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면 되고, 이제는 신규매수/추가매수 하기에 또 애매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혹여 주가가 내려준다면...그때 매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는 랜덤이라서 로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700Wh/L 이상의 밀도 구현을 위해서는 <실리콘 산화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리콘 산화물>의 사용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리콘 산화물>은 전기차 외에도 전동공구, 스마트폰 배터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2017년~2018년도 주가 상승은 <형광체>였다면, 이번의 주가 상승은 <실리콘 산화물>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3년에 <실리콘 산화물>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하면 <실리콘 산화물>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컨센서스 기준, 2023년 추정 주당순이익(1,887원)에 목표 PER40배를 적용하면 중장기적으로(단기에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목표주가 75,000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능력



=>2차전지 섹터 특성상 미래의 실적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주전자재료의 실적이 2023년도에 폭발할 예정이지만, 주가는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리콘산화물의 실적은 2020년 225억원에서 2023년이 되면 1,654억원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전재료 사업부는 삼성전기의 MLCC매출액 성장과 동행합니다. 삼성전기의 MLCC매출액 추정을 보면 역시 성장하게 됩니다.

=>형광체 사업부는 매출의 90%가 차량용, 10%가 일반용으로 추정되는데 차량용 조명시장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끝

※월간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